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7년 3월 31일(금) ... (율력 3월 4일) ... Пятница 31 марта 2017 г. № 12 (11672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극동지역 클래식체스챔피언대회에서 수상한 사할린선수들(왼쪽으로부터: 다리야 호홀로와/2등, 석 콘스탄진/3등, 신 제니스/우승)이다. (사할린주스포츠청소년정책부 홍보실 제공)

단신

사할린, 주내 국가방위군 축하

러시아연방 국가그와르지아(방위군)는 2016년 4월에 창설되어 3월 27일이 러시아 대통령령에 의한 '국가방위군의 날'로 제정됐다. 지난 27일 사할린에서 첫 국가방위군의 날 기념행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옥차브리> 영화관에서 이뤄졌다.

사할린 주지사 올레그 코제야코는 참석한 방위군들을 따뜻이 환영하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방위군의 역할은 테러와 범죄조직과 싸우며 주요시설물을 보호하고 특수화물 운반에 종사하고 국경을 수호함에 있어 연방보안청과 협력하는 데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날 주지사는 방위군들이 훌륭한 활동을 해 주어 지역경제발전에 공헌한 기회를 제공했고, 산업계획을 실현시키며, 사할린 주민들의 문화와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격려하며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야쿠샤, 사할린농업부 장관 임시 대행

최근 2주 사이 검찰은 권력 남용으로 주농업부 미하일 쿠즈넨코 장관과 타마라 물렌코와 차관, 사할린주토지재산부 엘레나 가흐 장관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지금 봄 파종 시즌이라 농업부 장관 대행을 임시 알렉산드르 야쿠샤가 수행한다.

지난 29일(수) 임시 대행은 농업문제에 올레그 코제야코 주지사가 소집한 회의에 참가한 가운데 회의에서는 <그린 아그로> 농업회사가 트로이츠코예와 베레즈냐키 마을에서 건설하는 낙농장의 문제로 심의했다.

한편 바로 이 회사 때문에 현재 쿠즈넨코, 갈라호 장관들과 물렌코와 차관이 수사를 받는 중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아직 마약상황이 심각

지난 29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에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 주재 아래 마약퇴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서는 도시 내 마약상황 조사 결과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마약 흡입률은 25.3%, 마약 중독자는 2.9%감소한 상태이나 회의에서는 아직도 주중앙도시의 마약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에 마약중독자로 34명의 미성년이 등록되어 이들 중 8명은 10-12세의 아동이다. 이런 상황의 요인 중 하나는 마약이 주로 인터넷상에서 은밀한 거래로 매매되어 확산되는 데 있다. 자녀들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 사할린마약퇴치위원회는 구체적인 마약퇴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장 직선과 부패 등 문제로 시민집회 열려

4월 8일 13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레닌광장에서 뇌물수수 반대와 섬지역에서 시장 직선선거 취소를 반대하는 집회가 소집될 예정이다. 집회신청은 사할린주 두마의회 갈리나 포도이니코와 의원(공산당 소속)이 제출했다. 집회의 항의 주제 중 하나는 "사할린주민들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집회 조직위원들은 집회 참가자 인원을 약 700명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시행정부에서 4월 8일 12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콤무니스찌체스키프로스펙트부터 칼 막스 거리까지 레닌거리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연례 사할린주 범조인 컨퍼런스 개최

지난 3월 23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4일간 연례 범조인 컨퍼런스가 열렸다. 사할린주기관 지도자들과 범조인들 155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년 활동을 총결산하고 새로운 시기에 문제들을 논의했다. 프로그램에서는 형사, 민사, 행정법 주제에 따른 세미나 수업과 사할린주 판사자격 간부위원회를 새로 선정하기도 했다.

작년에 사할린과 쿠릴 섬들에서 형사사건은 5289건, 민사사건 103420건의 소송이 이루어졌다고 코롤리 미하일 사할린주 재판장이 보고했다.

형사소송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범죄가 더 많았고 민사소송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비, 관리비, 난방비 및 전기세 등에 관련된 기소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법에 관련 사건은 8.3% 감소, 구형을 받은 사람 수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할린, 쿠릴주민들은 주로 법적 조정 문제로 법정을 찾았는데 지난해보다 4% 증가했다.

포럼에 참석한 올렉 코제야코 주지사는 범조인의 활동은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한 만큼 국가전체적 관심과 사회적 안정성확보와 사업을 위한 편안한 조건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공적이며, 결실있는 포럼이 되길 기원했다.

(본사기자)

신 제니스, 극동지역 체스대회에서 우승

이번 주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극동지역 클래식체스챔피언대회가 개최되었다. 여성 부문에서 여자선수 11명이 참가한 가운데 캄차트카의 크세니아 레겐코가 8점으로 금메달을 차지, 사할린주를 대표한 다리야 호홀로와 선수가 7.5점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남자 선수 29명 중에서는 사할린주를 이 위탈리, 석 콘스탄진과 신 제니스가 대표했다. 이 위탈리는 4.5점으로 15위를, 석 콘스탄진은 6.5점으로 3위를, 최종 우승자로 신 제니스는 연해주 선수 무샤예브 라슬과 동점 7.0 점을 따냈는데 보충점수가 더하여 신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사할린주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여러 경기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신 제니스는 작년 7월에 사할린주의 우수 선수로 선정된 바 있다.

구세브, 오하구역 시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지난 29일(수) 사할린주선거위원회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 주요의제는 3월 22일 오하지역선거위원회의 결정에 항의하는 3월 13일 오하구역 시장으로 선출된 세르게이 구세브에 대한 심의였다.

3월 13일 오하지역선거위원회는 오하에서 치러진 선거를 유효로 인정하고 오하구역 시장으로 세르게이 구세브를 선출했다. 그러나 3월 22일 오하지역선거위원회는 구세브를 오하 시장으로 승인하는 결정을 취소했다. 이유는 시장으로 선출되고 신임시장으로 승인을 받은 후 5일 내에 전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러나 세르게이 구세브는 이 기한을 위반했다. 이에 그는 자신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었다고 변명했다. 오하지역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그는 이에 대해 주선거위원회에 항의서를 보내고 오하시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주선거위원회 회의에서는 연방법을 고려해 재판 판결이 나온 후에 이 항의서에 대해 심의하기로 다수가결로 결정을 내렸다. (본사기자)

<p>새고려신문</p>	<p>2017년 신문주문</p>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1개월 구독료는 75루블리 79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p>		

올림픽대회에 또 한 번 출전하고 싶어요

지적·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스페셜 올림픽에서 은·동 메달을 따낸 14세의 우 왜채슬라브

지난 27일(월) 오스트리아 세계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낸 우 왜채슬라브 알핀스키 선수가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14세의 지적장애자로 스페셜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동포선수의 성공적인 경쟁은 러시아 사할린 언론인들의 취재거리가 되었다. 22개 지역에서 러시아 대표팀 선수들이 구성되었는데 극동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 왜채슬라브가 대표했다.

이에 대해 우 선수의 어머니 우영희(올가)씨의 말에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우리는 사할린에 도착한 다음날 신문사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40대의 어머니와 신문을 찾은 기사의 주인공은 시차 때문에 잠에서 덜 깬 모양이었지만 기자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변했다.

- 은메달, 동메달 따서 좋습니다... 올림픽이 좋았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페셜올림픽대회에 또 가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금메달 따고 싶습니다...

다음달 15번째 생일을 맞이할 슬라와(애칭)는 외동아들이다. 그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슬라와에게 정신지체가 있다는 걸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한다. 4살이 되어서야 의사들이 지적 장애진단(출산 트라우마 - 혈종 때문이 아닌가 보고 있음)을 내리면서 어머니 우영희 씨는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한다. 마음을 다스리고 이 장애판정을 인정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슬라와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 공식적으로 결혼하고 함께 사는 가족인데 슬라와는 어머니의 성 '우'를 갖고 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제가 외동딸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죽으면 대도 끊어진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우' 성이 남도록 이 성을 아들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실은 남편이 한인이 아니고 남호민족 사람이거든요..."라고 우영희 씨가 설명했다. 우영희 씨의 아버지는 슬라와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손자가 '우'성을 갖고 있어서 편히 눈을 감으셨다고 우영희 씨는 말한다.

슬라와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나제즈다(희망)> 특수조정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가 좋아하는 학교 과목은 수학이다. 역사책을 읽기 좋아하고 러시아 대조국전쟁, 러시아·터키전쟁, 제1,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들을 좋아한다고 했다. 요즘 소년들과 똑같이 컴퓨터 게임을 많이 즐긴다.

앞으로의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나제즈다> 학교선생님들은 학생들



의 실력, 성격을 점검하여 어느 분야에서 방과 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학부모들에게 알려주곤 한다.

슬라와 같은 경우에 교사들은 스포츠를 추천했다. 그때 한 기사를 읽은 우영희 씨는 아들에게 전망이 있는 알핀스키를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한다. 때마침 같은 학반에 있는 남학생이 알핀스키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를 통해 현재 사범 블라지미르 오폴레브를 만나게 되었고 사범은 장애아들에게 적응체육을 가르치는 전문트레이너였다. 사범은 슬라와와 이야기를 나눈 후 그에게 알핀스키를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올가는 무척 기뻐했다고 한다. 이것이 4년 전 일이었다.

처음에는 아무 것도 되지 않아 그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겁도 많고 눈물만 많이 흘리는 시기였다고 한다.

"우리 아들의 트레이너는 훌륭한 분이세요. 선생님은 뇌성마비, 다중중후군(선전성), 시각장애 아동 등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거든요. 각자에 대한 선생님의 접근 방식이 있다 할까요. 학생들이 그분을 믿고 잘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두가 좋은 결과를 보여주며 여러 경기에서 상을 받고 있어요. 사범님은 그저 스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영, 달리기, 체육 전반적인 면에서 연습을 시킵니다. 온몸을 단련하기 위해서죠. 인내심과 이해심도 많은 분이세요. 우리(학부모)가 가끔 자식에게 뭔가 더 주장하고 소리를 높일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사범님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전 이 분이 너무 존경스러워요."라며 우영희 씨는 계속 말을 이었다.

"슬라와가 이런 결과를 따낸 것도 사범님 덕분이 아니겠어요?"

사실 슬라와는 훈련 내내 그리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 2월에 러시아 바시키르공화국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알핀스키·스노우보드 스페셜 올림픽에 슬라와를 참가시켰지만 별 기대는 걸지 않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슬라와가 금메달을 따낸 것이다. 그리고 금메달리스트 중 추첨이 있었는데 구성된 국가대표팀 팀원으로 두 선수를 뽑아야 했다. 운 좋게도 그중 슬라와가 뽑혔다. 사실 제1선수가 아닌, 제2선수(대기 선수)였다. 그런데 슬라와가 대기하던 제1선수가 병으로 오스트리아 스페셜올림픽에 불참을 밝히자 사할린에서는 슬라와가 오스트리아 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하도록 <러시아 스페셜 올림픽>협회 사할린지부(지부장 부리흐 나탈리아)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 우선 모스크바 본부에는 국가대표로서 사할린 선수의 출전허가를 요청했고, 다음은 사할린주스포츠부에 장애인선수와 트레이너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다행히 모든 문제들이 긍정적으로 해결되어 오늘 사할린 선수는 힘들게 획득한 두 메달을 사할린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다.

"올림픽 알핀스키경기에서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각 메달을 따내기 위해 각 부문에서 5번 출전해야 했습니다. 자격인증을 위해 3번, 두 번은 경기 점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몸이 건강한 선수들에게도 어려운 과정이죠." 라고 블라지르 오폴레브 사범은 말한다.

그러나 슬라와는 피곤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려웠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1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저의 결과에 만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참가이니까요." 라고 의연하게 우 왜채슬라브가 덧붙였다.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을 증명하듯 그는 경기 종목 중 슬라롬(회전 활강)에서는 은메달, 슬라롬-기간트(대회전)에는 동메달을 따냈다.

슬라와를 지키고 있는 어머니는 스키를 시작할때 피눈물을 흘리던 자식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학교 애들이 슬라와가 한번도 대륙에 가보지 못하고 비행기도 타보지 못했다고

스페셜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Special Olympics)은 4년마다 개최되는 지적·발달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대회이다.
스페셜올림픽의 비전
모든 사람들이 발달장애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인류 공동체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스페셜올림픽의 정신
스페셜올림픽의 목표는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존경을 받고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선수들이 스페셜올림픽의 스포츠 훈련과 경기 대회를 통하여 정기적인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그들의 스포츠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놀랐는데 작년 바시키리공화국 가본 이후에는 그 놀림이 그쳐졌죠. 지금 개가 비행기도 타보고 기차도 타보고 지하철 등 타보았으니..." 라고 하면서 우영희 씨는 웃었다.

사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륙 여행을 못 시킨데 대해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아들이 이전 모스크바, 유럽 까지 가게 되어 우영희 씨는 기쁘다고 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스페셜올림픽에서 대회 명예위원장인 아놀드 슈발츠네거(Арнольд Шварцнегер)가 메달리스트들이 모여있는 텐트를 잡자기 찾아와 각 선수와 악수를 하며 격려의 말을 하는 바람에 슬라와도 아놀드 슈발츠네거와 악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어로 말하는 유명배우의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고 한다.

스페셜 올림픽의 명예위원장인 장기간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할린에서는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단체는 슬라와의 이번 올림픽 출전을 적극 도운 <러시아 스페셜 올림픽>단체다.

장애는 신체 어느 한 곳이 일반인보다 불편할 뿐, 그렇다고 그들의 마음이나 꿈도 장애인 것은 아니다. 자신의 희망을 가지고 장애를 딛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힘찬 박수를...

(배순신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무료법률서비스 인기 상승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은 점점 더 많이 무료법률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2016년에는 2015년보다 23%가 많은 사할린 및 쿠릴 주민 3937명이 무료상담의 혜택을 받았다고 세계법조인활동확보에 따른 사할린주 법조인활동확보청의 이완 로바노브 부국장이 회의에서 밝혔다. 등록된 바로는 가장 많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935명이 상담을 받았고, 지도자들 중에는 포로나이스크(344명), 톱몌스코예(225명),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309명), 오하(245명), 돌린스크(238명)와 흠스크(208명)에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급, 제2급 중에서는 40%, 일반인 중 입장을 원하는 가정이 95%가 무료법률상담을 요청했다. 작년부터 사할린주에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외, 입법부는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건목록을 다양화했다.

현재 법에 정해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권자 외에 비근로자 제3급 장애인, 수용소 미성년 수감자, 임산부, 부모, 다자녀가족(18세 미만 자녀들)의 부모, 독거부모, 전통경제활동을 하는 북

방소수민족 대표자들, 노숙자들, 임시직을 찾는 사람들이고 형사소송과 연관되지 않은 문제로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은 구직자나 사고·화재·자연재해·폭력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다.

로바노브 부국장에 따르면 사할린주민들은 가장 많이 주택문제로 상담을 청했는데 주로 낡고, 수리가 필요한 주택으로부터 이주 문제와 관련된 1467건, 사회복지문제로 747건, 가정문제로 534건, 이와 더불어 토지소유권, 노동권, 연금권 등 권리에 대한 상담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возросла популярность бесплатных юридических услуг

Всё больш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бращаются за бесплат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помощью. В 2016 году её получили 3937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что на 23% больше, чем в 2015 году, сообщил на совещании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мировых судей Иван Лобанов.

Больше всего обращений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935, в лидерах также Поронайск (344), Тымовское (335),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309), Оха (245), Долинск (238) и Холмск (208).

Рост обращений на 40% отмечен среди инвалидов первой и второй групп, на 95% - среди лиц,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в семью ребёнка.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еличился список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имеющих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бесплат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помощи. Кроме того, зако-

нодатели разнообразили перечень случаев оказания бесплатной юрпомощи.

Теперь получателями безвозмездной помощи юристов кроме тех, что указаны в законе, являются неработающие инвалиды третьей группы, бывшие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узники концлагерей,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родители, многодетные родители с детьми до 18 лет, а также матери и отцы-одиночк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а, ведущие традиционную хозяй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лица, освобождённые из мест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и не трудоустроенные на момент обращения, если они обращаются по вопросам, не связанным с уголовным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ом, люди, оказавшие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из-за аварии, пожара, природных катастроф, войн.

По информации Лобанова, чаще всего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обращались за бесплат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помощью по жилищным вопросам – 1467 сообщений, в основном касающимся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ветхого 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социальным – 747 и семейным – 534. Поступали также обращения в сфере земельных, трудовых, пенсионных прав.

사할린, 가장 노후된 자동차들이 있는 지역 중 하나

사할린에서 자동차의 <평균 수명>은 19,6년으로 국내 지표상으로는 4위다. 이보다 더 노후된 자동차들은 캄차트카, 프리모리예와 유태인자치구에 있다.

(8면에 계속)

이명수 의원,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거주·정착 지원 모색

이명수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아산갑)은 지난 17일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국내 거주·정착 지원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 개최 목적은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 동포 중 조국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국내로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의 국내 거주 및 정착단계에서 지원을 개선하고, 아직 사할린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의 교류 및 방문 기회를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명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할린 동포 문제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과 함께 한일 과거사문제 중의 하나로써, 사할린에 잔류한 한인들의 자유의사를 반한 일본의 고의적인 방기에 의한 특수성이 있는 문제로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1989년부터 한일 적십자사를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모국 방문, 영주귀국 등의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고, 1994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에 대한 한·일간 합의로 일본이 건설비용과 정착지원금도 지원하게 되었다. 한·일간 합의에 의한 비용과 예산은 인천 사할린동포복지회관, 안산 사할린 동포 거주지 조성 및 영주임대주택 건립, 사회보험 지원 등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되었고, 2016년 말까지 총 4,387명의 사할린 동포가 국내로 영주 귀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복지시설 부족,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소통문제, 사할린 가족과의 이산가족문제 등 편안한 여생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영주귀국 사할



린동포의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방향이 논의되어 법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노영돈 인천대 법학교수의 진행하에 진행된 토론회는, 유웅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토론에는 이기성 외교부 동북아1과 과장, 이수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 유영남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 복지사업팀 팀장, 우북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권경석 사할린동포귀국자모임 회장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본인이 선택해 이민을 간 것이 아닌 역사적 이유로 고국이 아닌 일본,중국,러시아(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가

고국 한국에서 살고자 할때에는, 탈북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주거와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들뉴스)

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사할린동포회관 어르신들 섬기는 봉사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KOGAS 봉사단은 지난 3월20일 인천사할린동포회관에서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책으로 마음나누기, 봄맞이 동포회관 주변 청소, 창문닦기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됐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할린 동포 어르신 80여 명이 모여 살고 있는 노인요양시설로 우리민족의 아픈 과거를 보듬는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의 쉼터이다.

한편, 책으로 마음 나누기는 사할린동포 어르신과 봉사단원이 1:1매칭 되어 전래동화를 읽은 후 동화의 내용과 관련된 창작 미술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겠다는 가스공사 봉사단들의 마음이 훈훈하게 전해지고 있다.



[대한뉴스]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2년에 나오기도 했다.★
최근 잇따라 진행된 사법부의 이같은 해석과 판결은, 사할린 한인 문제에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과, 그럴 때라야 점차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에게 과거청산의 책임을 확고히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사할린 한인들을 전폭적으로 끌어안을 때, 일본과의 외교 협상에서도 떳떳하고 공정하게 임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 - (2012.5.24. 선고 2009나22546)

그들을 시시포스의 신화에 가두지 말라

2013년에 열린 <전국 사할린귀국동포 단체협의회(이하 동포협의회)> 회의에 참여했을 때다. 김포, 천안, 부산, 오산, 화성, 원주, 인천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지역모임 회장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익로비활동’이 결의되었다. 이에 KIN과 <동포협의회>는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또한 KIN에서 준비한 ‘사할린동포 지원특별법 관련 자료집’을 들고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돌면서, 특별법이 상임위 안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촉구했다. 지방에 사는 한인들은 해당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특별법의 통과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몇몇 의원들(황진하, 정의화, 정문헌, 전해철, 김성곤 의원)과는 면담이 성사돼 직접 마주앉아 대화를 나눴고, 재외동포 영사대사에 이어 강창희 국회의장까지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때 강창희 국회의장이 해당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불러 특별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되나 보다’는 희망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2014년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다시 이루어졌다. 기존 상임위 의원들도 교체되어 그동안의 로비활동은 전부 원점으로 돌아 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시시포스Sisyphos’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계속해서 산 정상까지 돌을 져 나르고 굴러야 하는 한 사람과, 그를 영원한 고통 속에 가둔 가혹한 운명을.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돌덩이가 특별법으로 보이고, 그의 얼굴 위로 사할린 동포들이 겹쳐지는 건 나의 지나친 비약이자 과장일까? 그렇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도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의 극단적인 상상이 현실로 돌변할지도 모른다는 이 생생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거나 무시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들, 목소리

사할린 한인과 마주앉아 그분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를 듣노라면, 내게도 그 고통이 전이되는 듯 늘 몸이, 마음이 시리고 저려왔다. 그러나 그 작업은 또한 내게 가장 힘이 되는 일이기도 했다. 자신의 눈엔 눈물이 마를 날 없어도 바깥으로 향하는 시선은 더없이 따스하다는 것을, 상처를 드러낼 때는 목소리가 격양돼도 이내 너털웃음을 되찾을 줄 아는 여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는 생생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십 년을 어느 국가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채 홀대당하며 살아왔음에도 그분들이 보여준 태도는 어찌나 당당하던지.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며 생존해온 자들만이 지닐 수 있는 그 빛나는 모습 앞에서, 나는 또 얼마나 작아지고 숙연해졌던가.

인터뷰를 하며 맺은 인연이 여러 해 쌓인 지금, 그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드는 감정은 안타까움과 고마움이다. 한 해가 다르게 볼 수 없는 분들이 늘어가는 게 안타깝다면, 아직 살아서 잊혀져 가는 역사와 그에 담긴 삶을 전할 분들이 있다는 게 마냥 고맙다고 할까. 그러니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뿐이라는 게, 나는 참 많이 부끄럽고 죄송하다.

뜨거워서 더 고독한 ‘경계인’의 삶

<화태귀환 재일한국인회> 회장 이희팔

벌써 1년 전이다. 일본 국회와 외무성 앞에서 눈처럼 흩날리는 빗꽃 아래 서 있던 것이. 당시 나는 사할린주 한인회, 이산가족협회, 노인회, 이중징용 유가족회 등 ‘한인 2세’들로 구성된 회장단이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들의 목적이 일본 외무성 및 적십자 방문, 중의원 면담 등을 통해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피해자들의 증언대회를 열어 사할린 한인이 처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라면, 내가 동행한 이유는 그 생생하고도 뜨거운 ‘현장을 직접 두 눈에 담고 발로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В прошлый раз мы с вами рассматривали как массово возникали в Корее конфуцианские (или скорее неоконфуциа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определяя развитие страны на долгое время. Тут стоит сделать небольшое отступление и все-таки рассказать, что такое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о (как вы помните, базовые принципы конфуцианства мы рассматривали в одной из статей) и каковы его особенности развития в

Корее.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о – это западное (европейское) название китайской философской системы, сформировавшейся в XI–XVI вв. (со времен династии Сун до династии Мин, что отражено в китайском названии школы). В самом общем смысле значение этого термина – вся совокупность конфуцианских (или называющих себя таковыми) учений, созданных в Китае от XI в.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В современной кита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ного конфуцианства часто используется калька с английского Neo-Confucianism 新儒家 (xīn jūjiā). В более узком смысле,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о – это совокупность конфуциански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мыслителей от времён династии Сун до маньчжурской династии Цин. На это указывает второй термин: 宋明理学 (Sòng-Míng lǐxué).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о делало упор на конфуцианство, однако также интегрировала в себя элементы даосизма и буддизма. Эта система стала синтезом основных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существовавших в Китае того времени и оказала огромное влияние на философскую мысль не только Китая и Кореи, но и Японии, и Вьетнама.

Китайская терминология этого явления крайне многообразна. Современники и учёные, находившиеся в русле неоконфуцианской традиции, использовали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е определения (Сунское учение, учение Чжу Си и т.д.).

В конце правления династии Сун, в 1241 году, под названием «лисюэ» (理学)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о в чжусианской версии было положено в основу официальной идеологии.

Предтечами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а иногда называют Хань Юя и Ли Ао, интеллектуалов эпохи Тан. Однако основоположниками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а считают «пятерых учителей эпохи Сун»: Чжоу Дуньи, Шао Юн, Чжан Цзай, Чэн Хао и Чэн И. В эпоху Сун наиболее разработанную неоконфуцианскую философскую систему создал Чжу Си. Его новаторство заключается в объединении конфуцианских идей с понятиями даосизма. Оппонентом Чжу Си был его друг, Лу Сяншань (Лу Цзююань, 1139–1192). Свои философские взгляды, связанные с буддизмом, он выразил в не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сочинениях, используя конфуцианскую терминологию. Их объем и значимость существенно уступали работам Чжу Си, однако они обрели вторую жизнь в трудах Ван Янмина, его знаменитого последователя династии Мин.

Ван Янмин (1472–1529), используя учение Мэн-цзы, создал философию действия, идейно близкую чань-буддизму. Его учение было связано с теорией Лу Цзююаня, получив известность как школа Лу-Ван (陆王学派) или «Учение Сердца» (心学).

Учение Сердца находится в оппозиции к Школе Принципа (理学) Чжу Си, которая также называлась школой Чэн-Чжу (程朱学派). «Чэн» в её названии – фамилия братьев Чэн И и Чэн Ха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Лоянской философской школы 11–12 вв. Однако исторически значение Чжу Си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и деятельность лоянских философов оказалась менее известна.

Учение Чжу Си стало обобщением несколь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философской мысли, бытовавших в эпоху Сун. Фоном для их развития был актив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империи, сопровождавшийся спорами вокруг реформ китайского императора, а также проблемы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онфуцианская элита выступала против радикальных нововведений Вана и его сторонников и немало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сворачиванию реформ.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ам Чжу Си поддерживал многие реформаторские начинания Ван Аньши, последующая доктринализация его учения стала показателем победы консерватизма.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Вячеслав У дважды стал призером Всемирных зимних игр Специальной Олимпиады-2017 в Австрии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с 18 по 24 марта, в австрийских городах Грац и Шладминг проходили Всемирные зимние игры Специальной Олимпиады-2017.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сборной было два сахалинца - Вячеслав У участник Перво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Спартакиады Специальной Олимпиады России по горным лыжам и сноуборду среди лиц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и его тренер Владимир Геннадьевич Ополе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у удалось завоевать две медали - бронзу в слалом-гиганте и серебро в слаломе.

- В горных лыжах, в которых выступал Слава, не было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что замечательно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Чтобы завоевать каждую медаль, в каждой дисциплине ему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совершить по пять спусков: три квалификационных заезда и два зачетных. Это очень непросто даже для здорового спортсмена, - отмечает тренер спортсмена Владимир Ополев.

Хотя сам Слава говорит, что не устал.

- Я не устал, хотя было очень трудно, хоть и не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но своему результату рад. Главное участие, а не победа! - добавляет Вячеслав У.

В слалом-гиганте Вячеслав соперничал с 24 спортсменами. При этом только половина были его сверстниками. По итогам двух зачетных заездов мальчик уступил только чилийцу и поляку.

Не удалось островному горно-



Атлеты Специальной Олимпиады России завоевали 101 награду – 44 золотых, 34 серебряных и 23 бронзовых медали на Всемирных зимних Специальны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которые состоялись 14-25 марта в Австрии.

В Специальной Олимпиаде участвуют люди с нарушением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Всемирные зимние Специальны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в Австрии объединили 2600 атлетов и партнёров из 105 стран мира, 1100 тренеров и судей, 3000 волонтеров, 10 000 членов семей и болельщиков на аренах и миллионы телезрителей по всему миру. В состав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ошли 79 сильнейших атлетов Специальной Олимпиады России из 22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по восьми видам спорта: флорбол, хоккей на полу,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шорт-трек, горные лыжи, сноуборд, снегоступинг, лыжные гонки.

лыжнику выступить только в супер-гиганте, старший тренер сборной России выставил на эту дистанцию спортсмена из Башкортостана.

- Я думаю, если бы и там еще проехали, тоже заработали бы медаль! - добавляет тренер.

Напомним, на Перво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Специальной Олимпиаде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и сноуборду, которая прошла с 24 по 28 февраля 2016 года в Белорецке, Республика Башкортостан, саха-

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инвалиды показал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заняли третье общекомандное место. Именно победа на эт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дала Вячеславу шанс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о Всемирных зимних Играх в Австрии. Впереди у мальчика еще много стартов. Но как признается он сам, он будет усиленно готовиться, чтоб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завоевать золото Всемирных Игр.

(Фото пресс-центра минспорта)

Сахалинец Денис Син стал чемпионо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классическим шахматам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завершился чемпионат ДФО по классическим шахматам среди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Островные шахматисты завоевали на этом турнире медали всех достоинств.

В женском чемпионате (11 участниц, 9 туров по швейцарской системе)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ляла Дарья Хохлова. На старте она одержала две победы. Затем сыграла вничью с одной из своих главных соперниц — Ксенией Легенько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Эта ничья не была фатальной, чего нельзя сказать о поражении в пятом туре от Алены Гармаш (Приморье). Причем Дарья проиграла белыми фигурами. После этого сахалинской шахматистке оставалось надеяться на то, что Ксения Легенько на финише не выдержит напряжения и начнет терять очки. Эти надежды не сбылись. Ксения хоть и сыграла вничью с Аленой Гармаш, но выиграла остальные партии. В итоге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завоева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 Камчатки (8 очков). В активе Дарьи Хохловой 7,5 очка и серебряная награда. Третий призер — Алена Гармаш (7 очков).

В мужском турнире участников было больше (29). Они также сыграли 9 туров по швейцарской системе. В заявку островной команды вошли Виталий И, Константин Сек и Денис Син.

Блестяще проявил себя Денис Син. Он разделил первое-второе место с Расулом Мусаевым из Приморья. Оба шахматиста набрали по 7 очков.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казатели оказались в пользу сахалинца, и ему была вручена золотая медаль чемпиона.

Третьим призером стал Константин Сек, выигравший на финише три партии подряд (6,5 очка). Наш третий участник — Виталий И — занял 15-е место (4,5 очк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Турнир для меня

сложился удачно. Правда, в первом туре я потерял пол-очка в партии с Альбертом Ли из Приморья, которого должен был побеждать. После победы во втором туре проиграл своему тренеру Константину Секу, "зевнув" уже в худшей позиции. В четвертом туре выиграл у Владислава Спиридонова из Якутии. В пятом туре мой соперник Сергей Муратов из Приморья в сложной позиции "зевнул" пешку, и мне удалось победить в ладейном окончании. Затем с помощью так-

тики я нанес поражение сильному шахматисту с Камчатки Даниле Сутормину. В седьмом туре заставил сдаться Виктора Федук из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В восьмом туре Роман Янченко из Комсомольска-на-Амуре допустил ошибку, проиграв пешку. Материального перевеса мне хватило для победы. В последнем туре была ничья с Расулом Мусаевым, которая оказалась для меня золотой, — подвел итог сво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чемпион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Денис Син.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Начинает работу комиссия по обследованию корпуса парома «Сэволь»

28 марта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был определен состав комиссии по обследованию корпуса парома «Сэволь», поднятого со дна Жёлтого моря. В феврале был принят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здани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вышеуказанной комиссии,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должны войти пять человек, рекомендованных главными политическими партиями, а также тр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емей жертв трагедии. Посл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комиссия приступит к работе в начале апреля, когда, по планам, паром «Сэволь» будет доставлен на берег.

В Сеуле пройдёт встреча министров финансов стран-членов форума Азия-Европа

21-22 сентября в Сеуле пройдёт встреча министров финансов стран-членов форума Азия-Европа (АСЕМ). В его рамках министр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Чу Хён Хван намерен сделать акцент на поддержке системы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Об этом он заявил 28 марта в ходе второго заседания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финансов АСЕМ. По его словам, сегодня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одящееся впервые за 12 лет,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важным, учитывая нынешнюю тенденцию к расширению протекционизма, экономическим переменам, вызванным четвёрт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революцией. Последнее заседание министров финансов АСЕМ проходило в 2005 году в Роттердаме, после чего заседания не проводились из-за разногласий между некоторыми странами. По предложению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в Сеул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повестку встречи войдут такие проблемы как активизация инвестиций во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укрепл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и устойчивый рост.

Пак Кын Хе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судебном слушании по вопросу выдачи ордера на её арест

В 10:20 утра в четверг экс-президент РК Пак Кын Хе прибыла к зданию суда,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лушании по делу о выдаче ордера на её арест. Рассмотрение дела проходит в 321 кабинете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судьи Кан Бу Ёна за закрытыми дверями. По прибытии она не стала отвечать на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ов. Со стороны прокуратуры в судебном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занимавшиеся расследованием дела Пак Кын Хе – глава восьмого следственного отдела Хан Ун Чжэ и начальник первого спецотдела прокуратуры Центрально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круга Сеула Ли Вон Сок. Вместе с Пак Кын Хе в суд явились адвокаты Ю Ён Ха и Чон Чжан Хён. В отношении Пак Кын Хе выдвинуты обвинения из 13 пун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коррупция,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 властью и умышленный допуск утечк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екретов. 27 марта прокуратура РК направила официальный запрос в суд на выдачу ордера на арест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этого объяснялась тем, что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было собрано много улик, но так как подозреваемая отрицает большинство обвинений, существует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какие-то улики были уничтожены. Решение суда будет объявлено 31 марта.

В Китае обостряются протестные настрое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ПРО THAAD

В китайском обществе обостряются настрое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размещения в РК американ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ПРО THAAD. Зафиксирован случай, когда несколько китайцев повред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лаг. В этой связи в МИД РК выразили жёсткий протест. 28 марта в ходе очередного брифинг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Чо Чжун Хёк потребовал от китайских властей принять строгие меры по разрешению ситуации. По его словам, в Пекине согласны с серьёзностью проблемы, а в отношении причастных к инциденту ведётся расследование. В середине марта в городе Тяньцзинь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повалили корейск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флаги в двух спортзалах.

«Союз движения за свободную СК» вновь отправил в КНДР листовки

28 март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оюз движения за свободную СК» запустила на территорию Севера 300 тыс. агитационных листовок с осуждением убийства Ким Чон Нама. Отправка состоялась в районе Тханхён-мён города Пха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К 10 большим воздушным шарам также прикрепили 2 тыс. однодолларовых купюр, 300 брошюр, 500 USB и 500 карт памяти SD. В листовках указана информация об убийстве Ким Чон Нама в аэропорту Куала-Лумпура и слова осужд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политической власти КНДР.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позже, один из шаров не долетел до территории Севера, упав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Кояне. Организация планирует в этом году отправить в КНДР 10 млн листовок. (RKI)

В Пхенчхане полностью проверили объекты к Олимпиаде-2018

Олег Кирьянов (Пхенчхан, Каннын)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10, 11)

Как уже говорилось, накладки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случаются. Так, накануне открытия Ледовой арены Каннына, где должен был пройти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по шорт-треку, на объекте упало одно из электронных табло. Хорошо, что обошлось без жертв. Корейцы успели все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к началу состязаний, показав, что умеют работать в авральные условия. Правда стоит подчеркнуть еще раз, такие огрехи происходят всегда и у всех, когда проводятся крупные состязания. Вопрос в том, как быстро на нештатные ситуации успевают реагировать организаторы. В тот раз успели вовремя.

Неизбежным бичом всех Олимпиад и в значительной мере не до конца решенным вопросом является проблема с задействованием объектов после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У Пхенчхана есть неизбеж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в том плане, что в этой провинции живет мало людей. Поэтому придется либо содержать объекты, которые будут убыточные, либо ликвидировать их. Часть объектов носят временный характер и будет либо перепрофилированы, либо сокращены в масштабах либо разобраны. Это, в частности, касается главного стадиона, ледовой арены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и шорт-трек), дворца для хоккея на льду и других. Санно-бобслейная трасса будет убыточной, но станет базой для подготовки сборной Южной Кореи.

Ключевые виды зимних ОИ, такие как хоккей, биатлон, лыжные гонки, прыжки с трамплина - экзотика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шорт-трек и бег на коньках хотя и пользуются в Корее определенн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но ради них люди из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где живет около трети населения всей страны, вряд ли поедут в Пхенчхан. А потому эту проблему придется решать. Но здесь, как говорится, "девятая некуда": Пхенчхан и даже Каннын - отнюдь не мегаполисы, а, наоборот, в целом очень пустынные по меркам Южной Кореи районы, что снижает потенци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бъектов после Олимпиады-2018. Есть сомнения по поводу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и и окупаемости после О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коростной ветки Инчхон-Сеул-Каннын, но эта проблема (если возникнет) будет решаться уже после Игр, что не затронет состязания.

"Олимпиада будет особенной!"

Как уже было сказано, корейцы проводили Олимпиаду только однажды и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о - в Сеуле в 1988 году И была она летней, а зимних Олимпиад в Корею не было вообще. Корейцы очень гостеприимные люди, а к иностранцам - и вдвойне. Желание "не ударить в грязь лицом", когда на них смотрит весь мир, у них очень большое, а потому, пожалуй, можно быть уверенным, что Олимпиада в Пхенчхане пройдет успешно.

"Корейцы очень сильно стараются... Думаю, что все у них будет нормально... За свои горнолыжные склоны Пхенчхана я готов поручиться. Надеюсь, что нам будет сопутствовать благоприятная погода и что росси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завоюют медали. Так что ждем вас в гости", - сказал спортивный менеджер Оргкомитета игр Николай Белокринкин.

Биатлонистка Анна Фролина также выразила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ОИ-2018 пройдут успешно, добавив, что корейцы превратят игры во что-то особенное.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будет ли Олимпиада в Пхенчхане лучше или хуже, чем в Сочи или Ванкувере, но могу с уверенностью сказать, что она будет совершенно иной, очень особенной. Так что это точно стоит посмотреть, приезжайте!" - сказала она нам.

Если же судить по тестовым состязаниям, то российские болельщики были самы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из иностранцев. Многие приезжали в Корею из РФ специально ради того, чтобы побывать в Пхенчхане и поддержать российских атлетов.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Ванкувера и серебряный призер Сочи лыжник Никита Крюков, сказал следующее: "Меня сильно удивило, сколько много здесь в Корею российских болельщиков. Они очень заметны, активно нас поддерживают, конечно это очень помогает выступать нам", - рассказал атлет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В общем, Пхенчхан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 к Олимпиаде, многие российские болельщики уже хорошо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этими местами, а потому осталось лишь дожидаться февраля 2018 года. Надеемся, что атлеты РФ снова порадуют нас медалями, как и на тестовых состязаниях, проходящих на олимпийских объектах в том числе и сейчас.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Верховный суд США не согласился со сносом памятника жертвам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27 марта Верховный суд США отклонил заявку японской ультраправой организации ГАНТ о сносе памятника жертвам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в Глендейле, штат Калифорния. Иск подал глава организации Коичи Мера. В ходе судебного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а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правляло в Верховный суд США послание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емонтажа памятника, что является неординарным событием. Известно, что японская сторона также направляла лоббистов в органы власти США и ООН. Нынешний спор вокруг памятника в Глендейле начался в феврале 2014 года, когда ГАНТ подала иск в Федеральный суд Лос-Анджелеса. Причина иска заключалась в том, что памятник, не обоснова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 якобы посягает на авторитет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исключительные полномочия которого входит контроль за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ой. Суд не нашёл причин для удовлетворения иска, поскольку памятник не использовался в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вопросах и соответствует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федеральных властей. После этого ГАНТ обратилась в апелляционный суд девятого округа США. Кроме того, иск был подан в Калифорнийский окружной суд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небрежности, выраженной в том, что власти Глендейла не проводили голосования по содержанию текста, выбитого на табличке перед памятником. Однако в феврале 2015 года суд отклонил этот иск. В авгус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апелляционный суд девятого округа США также отклонил претензии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ы. (KBS World)

РК готовится к четвёрт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революции

В РК расширяют категор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революции в 17 областях четвёрт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революции. 28 марта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был утверждён и обнародован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законопроект. Для начала учреждаются категори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аккредитации в шести важных сферах – разработчик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для робототехники, разработчик аппаратных средств робототехники, разработчик 3D принтеров, специалист по их эксплуатации, аналитик медицинской информац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держиват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инновации, а также создавать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Новые категории будут созданы также в сфере биофармацевтики, энергетики и других важных для четвёрт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революции областей.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рабо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внедрению новшеств. В частно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работать экзаменационную систему и другие процедуры. Ожидается, что законопроект вступит в силу с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2018 года. (KBS World)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Сахал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культуры отмет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Дню работника культуры, состоялось в Сахалинском театре кукол. В зале собрались поэты, художники, сотрудники музеев и библиотек, деятели театра и кино, руководители творческих студий и т.д.

Со словам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 участникам праздника обратилась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ра Щербина.

- Я с глубоким уважением отношусь к работникам культуры и выражаю вам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преданность своему делу. У вас особая роль. Своим трудом вы сохраняете вечные ценности: величие родн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традиции и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создаете условия для творчества, способствуйте развитию духов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 желаю вам творческих успехов, счастья и добра. С праздником вас! - сказала Вера Щербина.

Она отметила, что сегодня в учреждениях культуры области трудится более 4 тысяч человек. Отрасль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ется. И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ует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роведен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Октябрь» Углегорска, в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Александровск - Сахалинском доме культуры,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зооботанического парка, завершены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в Долинске, дома культуры в селе Молодежное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т.д.

За плодотворный труд и вклад в культурную жизнь региона лучшие работники отрасли были отмечены грамотами. Два человека получили почетное звание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ом центральной город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имени О.П.Кузнецо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й библиотечной системы - Лидия Кисенкова, а также методист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 Лариса Левшеня.

Мэр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лжна ускорить темпы сноса ветхого 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омов и школ

Такие поручения были озвучены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ллеги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ера Щербина и ее заместитель Александр Житков.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мэри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едставила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б итога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города в 2016 году, а также доложила о планах на ближа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начальника департамент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льги Настич,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блюдается устойчивый прирост населения за счет повыше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Только за 2016 год численность горожан возросла на 939 человек и теперь составляет 201700. Выросли доходы населения. Рост ре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2016 году составил 1,3%.

- Хорош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работала и наша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 крупным и средним предприятиям вырос на 9,5%. Увеличился выпуск цельно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мясных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колбасных изделий, рыбных продуктов,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ы и безалкогольных напитков. На новый качественный уровень вышел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сектор, за счет субсидий на повышение плодородия земель, на возмещение части всевозможных затрат владельцам личных подсобных хозяйств.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ся модернизация и техническое перевооружение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й и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 рассказала Ольга Настич.

Она напомнила также, что в 2016 году на птицефабрике «Островно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веде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четыре птичника для напольного содержания кур, запущено производство охлажденного мяса бройлеров. В этом году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такого мяса составит 2600 тонн.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комплекса и ввод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ощностей площадью 8 гектаров в совхозе «Тепличный». В 2016 году введен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третья очередь тепл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вод новых мощностей и конкуренция со стороны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соседни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уже привели к тому, что гораздо менее существенным стал сезонный рост цен на тепличную продукцию. В этом году заработает четвертая очередь проекта на площади 2 гектар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частники коллегии уделили вопроса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За 2016 год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216,6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что в 1,8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2015 году.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граждан из аварийного и ветхого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35,8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Завершены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20-ти малоэтажных жилых домов в Дальнем и 18-ти домов в 25-м микро-

райо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новые квартиры в 2016 году переселено 1527 семей.

- Не всегда получается удовлетворить пожелания горожан при переезде в новые дома, особенно, если переселяем жителей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ов города. Прорабатываются разные варианты с Сахалинским ипотечным агентством, через заключение договоров о приобретении жилого помещения в районе привыч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граждан.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орода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ступила к разработке механизма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оров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в том числ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асселяемых ветхих и аварийных жилых домов, - поясн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Однако да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вызвала ряд вопросов со стороны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а Житкова.

- Вы утверждаете, что приступили к разработке механизм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оров. Но этот процесс может очень сильно затянуться, что недопустимо.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поставил четкую задачу - расселить ветхий и аварийный фонд за три года, с учетом мнения граждан. Но у вас до сих пор ни одного конкрет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работе с инвесторами нет. Скоро снова предстоит докладывать главе региона, что вы ему скажете? - сказал он.

Он также подверг критике работу городских властей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115 таких семей обеспечены землей п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Однако существует проблема обеспечения участков инженерно-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орода готова приложить все усилия для реш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задач и гарантирует выполнение социаль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еред горожанами. Уже определены площадки п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ов, вскоре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а дорожная карта с конкретными сроками и этапами работ, - отметил мэр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На 2017 год в планах - ввод ун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ок в селах Старорусское и Санаторное, универсальных спортзалов в 25-м микрорайоне,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и Луговом, завершение реконструкции стадиона «Космос». Запланировано также проведение комплексного озеленения участков улиц Комсомольская, Есенина, Горького, Поповича, проспекта Победы. Более 80 дворов будет благоустроено. Продолжится работ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школ.

- Перед нами стоит задача - ликвидировать вторую смену в школах области. Больше всего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с таким режимом рабо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эрии необходимо быть расторопнее. Решать данную проблему нужно несколькими способами. Это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школ и пристроек к уже существующим, и оптимизация имеющихся в школах площадей. В своих докладах вы представляете много цифр, но у людей другие критерии оценк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города - это комфорт, стабильность и уют, ощущаемый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Ваша задача - показать результаты, которые реально почувствуют граждане, - подвела итоги коллегии глав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ра Щербина.

Реализация масштабных проектов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позволит Сахалину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зить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завозной продукции

Ежегодно в регион с материка поставляется до 70 процентов все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Их стоимость по оптовым ценам в среднем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17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потенциал аграрной отрас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и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ысить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территорий - над решением этих ключевых задач сегодня работает област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В период до 90-х годов прошлого века аграрный комплекс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ивал потребност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картофеле, молоке и яйцах, в овощах - до 90 процентов, а в мясе - до 50. После десятилетий упадка отрасли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ходится завозить значительные объемы этих видов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Например, по итогам 2014 года регион обеспечивал собствен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в молоке всего на 18 процентов, а в мясе - менее, чем на 7.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финансовое состояние главных хозяйств региона было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ым. От деятельности четырех крупнейш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 совхоз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Комсомолец» и «Корсаковский», а также птицефабрики «Островная» по итогам 2014 года область получила лишь убытки - на сумму почти 4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е низкий уровень рентабельности тогда был обусловлен недостаточной работой по повышению плодородия почв,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 слабыми сборами картофеля и овощей. Кроме того, хозяйства оказались неспособны даже грамотно реализовать урожай -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его ушло на корм животным или было списано.

Ряд факторов сдерживал и развитие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На полях многолетние травы прошлых посевов не обновлялись более 20 лет. Не проводилось ранневесеннего боронования и подкормки почв минеральными удобрениями. Результат - плохие корма и высокие потери молодняка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У животных также фиксировались низкие удои и привесы.

В хозяйствах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и не хватало техники - большая часть парка к тому времени была предельно изношена. 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помещения для содержания скота и хранения картофеля и овощей находились в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м состоянии.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был исчерпан, истощен кадровый потенциал предприятий.

Чтобы предупредить их банкротство, а также для решения более объемной задачи повыш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требовалось принятие неотложных мер. В регион были привлечены лучшие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торые обладают перед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и опытом работы в сложны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Развитием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по выпуску свинины занялась компания «Мерси Агро Сахалин». В районе села Таранай был построен свиноплекс, который сегодн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ставляет на рынок области более 1000 тонн свинины.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завершится возведение второй очереди предприят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к концу 2017 года поголовье свиней там увеличится с 12 до 62 тысяч. А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вырастет на 5,5 тысяч тонн ежегодно.

Учен опыт лучших птицеводческих хозяйств России для модернизации яичного и создания бройлер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птицефабрике «Островная». Сахалинцы впервые за десятилетия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тать охлажденное мясо птицы.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данного вида продукции к концу текущего года вырастут с 200 до 2600 тонн. А в дальнейшем - до 10 000, что позволит полностью удовлетворить потребности региона.

В сфере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разверну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рупных молочно-товарных ферм. Самую крупную из них возводит ООО «Грин Агро Сахалин». В мае 2015 года компанию совместно с бизнес-партнерами из Приморья учредили сахалинские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 АО «Комсомолец» и АО «Совхо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Нов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азработала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роект крупнейше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егафермы, где будут содержаться более 10 000 голов скота, в том числе 3800 коров дойного стада. Ежегодная продукция нов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 свыше 30 тысяч тонн молока в год и около 500 тонн мяса. Помимо этого реализация начинания принесет в бюджет области около 1,5 миллиардов налоговых и неналоговых поступлений,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почти 500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Учитывая высокую социальную значимость проекта,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включили его в состав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Южная».

Уже в 2015 году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инвесторов началось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первой очереди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селе Троицкое. 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была подана заявка н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Корпорацией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ства были выделены по заявке со всеми подтверждающими документами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техники, оборудования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мплекса. Это позволило без промедления приступить к возведению первой очереди мегафермы на 1900 голов в районе села Троицкое. Объект начнет работать уже этой осенью.

Кроме того, займ позволил приобрести сельхозтехнику,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й хозяйство провело сезонные полевые работы на площади 1600 гектаров и заготовил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около 20 000 тонн кормов для будущего поголовья.

Сейча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экспертизу проходит и вторая очередь мегафермы, которую разместят близ села Березняки.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при участии инвесторов активно строится еще одна молочно-товарная ферма на 1000 голов дойного стада с агрогородком на 50 домов приусадебного типа. Она также будет введен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текущем году. При выходе на проектную мощность хозяйство ежегодно даст области до 7200 тонн молока и 200 тонн мяса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В результате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в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м комплекс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2020 году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увеличится на 20 тысяч тонн в живом весе, а молока - на 42,3 тысячи тонн. Будет создано около 1200 рабочих мест.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получит и экономика - валов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вырастет на 4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о, пожалуй, самый главный эффект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доступными и качественными продуктами питания, а область перестанет столь остро нуждаться в поставках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 матери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цент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국, 대극동러시아 교역국 '2위' 기록...수출규모 40% ↑ 지난해 극동러시아·한국 교역규모 55억600만달러

29일 코트라는 '2016년 극동러시아 교역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극동러시아의 최대 무역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교역의 25.1%를 차지했다"며 "한국은 22.6%를 나타내며, 주요 교역국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일본(21.3%), 벨기에(9.4%), 인도(3.5%), 미국(3.3%)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극동러시아와 한국 간 교역규모는 55억600만달러로 2015년 대비 13.7% 감소했다. 이는 한국이 극동러시아에서 수입한 금액이 전년 대비 21%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코트라는 분석했다.

전체 교역규모는 줄었지만, 극동러시아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6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특히, 사할린주 등으로의 기계·자동차류 수출이 크게 늘었다.

이 밖에 극동 러시아와 중국 간 수출입 규모는 61억 3000만달러, 일본과의 수출입 규모는 52억700만달러로 조사됐다. 한·중·일 3국 중 극동러시아와의 지난해 교역규모는 일본이 가장 적었다.

한국과 극동러시아 9개 지역 간 수출입 중에서 지난 2014년 이후 최초로 수입이 시작된 추코트카자치주가 특이점으로 꼽힌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한국은 생선 등 수산자원을 추코트카자치주로부터 수입했고, 화학제품 등을 현지로 수출했다. 그 외 사할린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일시적인 기계류 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과 극동 러시아 간 교역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극동러시아 수입은 목탄과 석유에너지자원 등이 각각 23% 이상 감소했고, 선박

과 보트 등도 전년대비 30% 가량 줄었다.

반면, 한국의 대극동 러시아 수출은 전년대비 35%의 증가세를 보였다. 기계류와 전자제, 주류 등의 품목이 선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무역관은 "러시아 정부가 제정한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법안으로 한-러 협력형태로의 현지 진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제품의 품질을 기반으로 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제품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주방세계와 일부 냉동식품 등에 대한 합작 문의 등이 있었고, 그 외 수산물·전자제 분야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되는 중"이라며 "현지 시장 동향 파악과 업체 면담을 위해 극동러시아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간투데이)**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19

이제는 한국 뉴스를 인터넷으로 접한다

(전화의 계속)

(3) 사정이 이러하다 / 어찌 이 아이만을 나무랄 수 있겠어요?
→

(4) 노력이 없다 /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

4. 보기와 같이 '-(으)라 - (으)랴'를 사용하여 () 안의 단어를 바꾸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저 가수는 (노래하다, 춤추다) 숨이 턱까지 차겠다.

→ 저 가수는 노래하라, 춤추랴 숨이 턱까지 차겠다.

(1) 결혼식 때 신랑은 손님들하고 (인사하다, 준비하다)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

(2) 9월에는 (학비 내다, 회비 내다) 이것 저것 돈이 많이 나간다.

→

(3) 결혼한 동생은 (공부하다, 살림하다) 좀 힘들겠어요.

→

(4) 학기 중에 (과제 제출하다, 시험 공부하다) 영화 볼 시간도 없어요.

→

(5) 친구는 낮에는 학교 (공부하다), 밤에는 (아르바이트하다) 잠 잘 시간도 없어요.

→

5. '-(으)라마는'를 사용하여 () 안에 있는 동사를 바꾸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1) 언니가 벌써 (퇴근하다) 문자를 보내 봐.

→

(2)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다) 한번 열심히 일해 보아라'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

(3)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있다) 공부는 계속해야지요.

→

(4) 너 따위가 무엇이 (무섭다) 치사해서 그만둔다.

→

(5) 한국에서의 추억이 어디 한두 가지가(아니다) 그 중에 판문점에 갔던 일을 어찌 잊겠는가.

→

읽기연습

※ 다음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독도의 비밀

독도에 국제적인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독도를 감싸고 있는 동해 깊은 땅 속에 천연가스로 활용할 수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때문이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과일로 치면 씨앗의 위치에 메탄이 있고, 바깥 껍질을 물 분자가 대신하고 있는 구조인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100% 얼어 있는 상태이다. 불을 붙이면 얼음이 녹으면서 내부의 순수한 메탄이 활활 타오른다.

지금까지 추정된 규모만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30년치에 해당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조원을 웃도는 거대한 에너지 자원이다. 세계 각국은 바다 깊은 곳에 묻혀 있는 이 '불타는 얼음'을 녹여 차세대 에너지원인 메탄을 뽑아내려 하고 있다. 우리는 독도 주변에 매장되어 있는 하늘이 내린 자원을 개발하는 일에 게을러 해서는 안될 것이다.

1. 위글은 무엇에 관한 글입니까?
2. 발굴한 지하자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3.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1. '-(으)르망정', '-(으)르 세라', '-(으)르진대', '-(으)라 - (으)랴', '-(으)라마는'를 사용하여 각각 문장을 두 개씩 만드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2017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행복한 도전이 있는
축제의 장”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일시 : 2017. 4. 9(일) 08:00
장소 : 군산월명종합경기장

www.smgmara.com
www.smgmara.org

국제공인대회 : Full, Half, 10km, 5km
International Certified Marathon Race
42.195km, 21.0975km, 10km, 5km

참가신청기간 : 2017. 1. 15 ~ 3. 20(65일간)
마라톤사무국 : 063)465-7731, 02)418-7881

주최 : 대한육상연맹, 군산시 | 주관 : 전라북도육상연맹, 군산시체육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군산시육상연맹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이와 같은 정보는 2017년 1월1일 상태의 지표를 토대로 <압토스타트>통계분석사무소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지역 중 가장 사용기간이 짧은 자동차가 많은 지역은 타타르스탄(9,6년), 모스크바(10,2년)와 한티-만시스크자치구(10,3년)다. 국내 자동차의 평균수명은 12,9년으로 나타났다.

전 지역 중 29개 지역의 자동차 매매단지에는 더 신형들로 확인된 가운데 외국산 마크를 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기간이 가장 짧은 자동차는 중국산 자동차(5,8년)다. 한국산 자동차의 평균수명은 (6,8년)이고 세계로는 미국산(9,1년), 유럽산 자동차 수명은 10,4년으로 나타났다 가장 노후된 외제차는 일본산(평균수명 12,6년) 자동차다.

러시아에 있는 승용차들은 서서히 노후화되고 있다. 지난해 신형자동차 매매단지에 따른 지역 통계에서 러시아의 자동차 수명 10대 순위 중 10년 이하인 곳은 3개 지역으로 밝혀졌다.

Сахалин попал в число регионов с самыми старыми авто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на Сахалине — 19,6 года. Это четвертый показатель по стране: старее машины только на Камчатке, в Приморье и Еврейской АО.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иводит аналитическое агентство «Автостат». Среди регионов с самыми молодыми автомобилями называются Татарстан (9,6 года), Москва (10,2) и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АО (10,3).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по стране — 12,9 года. Данные приведены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Моложе, чем в целом по стране, парк оказался в 29 регионах. Приводятся также данные по странам - 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иномарок. Самый молодой парк имеют китайские марки (5,8 года).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корейских автомобилей — 6,9 года.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находятся американские марки (9,1 года). У европейских машин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ет 10,4 года. Самые возрастные среди иномарок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японских брендов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 12,6 года).

Отмечается и то, что в России парк легковых авто медленно стареет. Год назад в рейтинге регионов по самым молодым автопаркам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три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 с показателем менее 10 лет.

사할린주민, 아내와의 소란보다 거짓 신고를 택하다

우글레고르스크 주민이 차량 도난으로 경찰에 거짓신고를 했다고 러시아 사할린주내무국이 전했다.

밝혀진 바로는 지난 목요일 26세의 우글레고르스크 주민이 교통사고를 내자 그는 자신의 자동차를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아내와의 분란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경찰은 그에게 거짓신고를 하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어도 그는 여전히 상상진술서를 제출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누군가 밤에 집 앞마당에 있던 그의 외제차를 훔쳐갔다는 것이다.

경찰 측은 우글레고르스크시민이 거짓증언의 증거확보와 관련하여 법보호기관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단시간에 불충분한 증언이 허위임을 밝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까지 그는 이 거짓진술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글레고르스크 젊은 주민의 행동은 러시아연방 형법상벌규정 제306조 1항에 따라 최대 2년간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Скандалу с женой сахалинец предпочел ложный донос

Житель Углегорска сделал ложное заявление в полицию об угоне,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МВД России.

Оказалось, что в минувший четверг 26-летний сахалинец попал в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ое происшествие. Он решил, что можно избежать выясн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супругой, если заявить стражам порядка об угоне его автомобиля. Хотя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предупредили об уголов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заведомо ложный донос, он все-таки изложил в заявлении события, которые были плодом его фантазии. По версии парня, ночью неизвестный похитил принадлежащую ему иномарку со двора дома.

По мнению полиции, житель Углегорска нарушил норма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в связи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проверки ложн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ичем он притерпелся своей выдуманной версии до того момента, пока полицейские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не собрали неопровержим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ее нес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Действия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подпадают под санкцию части 1 статьи 306 УК РФ. Максимальное наказание по ней грозит лишением свободы до двух лет.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